

22-14(통권 936호) 2022.09.23

# 경제주평

- 2023년 한국 경제 전망
- 2023년 2.2%로 성장세 둔화

# 목 차

## ■ 2023년 한국 경제 전망

- 2023년 2.2%로 성장세 둔화

|                         |    |
|-------------------------|----|
| Executive Summary ..... | i  |
|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    | 1  |
| 2. 대외 경제 여건 .....       | 3  |
| 3. 2023년 한국 경제 전망 ..... | 9  |
| 4. 시사점 .....            | 20 |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저 자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신 지 영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 임 연 구 원 (2072-6248, syroh@hri.co.kr)

## Executive Summary

### □ 2023년 한국 경제 전망 - 2023년 2.2%로 성장세 둔화

#### ■ 최근 국내 경제 동향

국내 경제는 전기비 0%대 성장세가 지속되고,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로 재전환되면서 경기 둔화 또는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022년 2분기 전기비 경제성장률은 순수출과 고정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총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4%p로 높게 나타나면서 0.7%를 기록할 수 있었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이런 흐름을 고려해 지난 4월을 저점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추세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 둔화 내지는 침체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고물가와 경기침체 우려로 가계와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 역시 향후 국내 경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는 등 가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행과 전경련 BSI(기업경기실사지수)도 올해 초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다.

#### ■ 대외 경제 여건

2023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의 부작용,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둔화될 전망이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차별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와 통화 긴축 여파로 가계의 소비심리 및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경기가 둔화될 전망이고, 유로존의 경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수급 차질과 산업생산 회복 지연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경제는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와 경기부양책이 대내외 여건 악화를 보완하면서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 경기는 전반적으로 2022년에 비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외여건 악화와 고물가 등과 같은 경기 하방 요인도 상존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경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국제 유가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위축이 국제 유가를 완만한 하락세로 전환시킬 전망이다. 다만,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원유 수출 통제가 강화될 경우 시장 수급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연중 높은 수준의 유가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유가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주요 산유국의 감산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환율은 달러화 강세가 다소 완화되면서 유로화와 엔화 및 위안화가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달러화의 경우 유로존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 인플레이 정점 통과에 따른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강세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화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긴축으로 강세 전환이 예상되나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강보합세에 그칠 것이다. 엔화는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강세가 예상되지만, 제로금리 유지 등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인해 강세 압력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 위안화는 강달러 현상 완화로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나, 부동산시장 회복 지연과 성장세 둔화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 2023년 한국 경제 전망

2023년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2022년에 비해 성장률이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2023년에는 주요국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환율 등으로 국내 순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보다 완화되고 인플레이가 안정화되는 반면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축소됨을 전제로 한다. 2023년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까지 둔화세가 이어지다가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상저하고'를 예상한다.

민간소비는 2023년에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재확산세 진정 및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해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이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고물가 현상 등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축소되면서 민간 소비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여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 및 이에 따르는 소비 회복 지연 현상이 연중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건설투자는 2023년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회복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건설자재의 수급여건의 점진적 완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 등으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는 소폭이나마 회복될 전망이다. 다만, 금리상승에 따르는 자금조달 비용 상승, 정부의 SOC 예산 축소에 의한 공공부문 수주 감소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도 상존한다.

설비투자 역시 제한적이기는 하나 2023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반도체 업종의 투자가 2023년에도 이어지면서 설비투자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기업의 투자심리 약화, 금리상승에 따르는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의 하방 요인도 있어 큰 폭의 증가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수출은 글로벌 경기 하방압력이 높아지면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023년 국내 수출은 2022년 중 단가 중심의 높은 상승세에 따르는 기저효과, 미국과 유

로지역 등 주요국 경기둔화에 따르는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세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對중국 수출 감소가 전체 수출 증가세를 상쇄할 가능성이 큰 만큼 높은 국내 수출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2023년에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경기둔화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 완화가 기대됨은 물론 2022년 중 높은 상승세가 이어졌던 만큼 역기저효과로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 주요 산유국의 감산에 따르는 유가 상승, 환율 상승세 지속에 따르는 수입물가 상승 부담 등의 리스크도 상존해 있다.

고용 부문에서는 2023년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신규취업자수 증가세도 둔화될 전망이다.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경기 둔화로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22년 고용 호조로 인한 역기저효과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신규취업자수 증가세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비스업 생산 회복세 둔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 등이 동반될 경우 신규취업자수는 전망보다 더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 2023년 한국 경제 전망 >

| 구 분       | 2021년<br>연간 | 2022년 |        |       | 2023년(E) |      |     |
|-----------|-------------|-------|--------|-------|----------|------|-----|
|           |             | 상반기   | 하반기(E) | 연간(E)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경제성장률 (%) | 4.1         | 3.0   | 2.1    | 2.5   | 2.0      | 2.4  | 2.2 |
| 민간소비 (%)  | 3.7         | 4.1   | 3.2    | 3.7   | 2.9      | 2.6  | 2.7 |
| 건설투자 (%)  | -1.6        | -4.5  | 3.0    | -0.8  | 4.0      | 1.0  | 2.4 |
| 설비투자 (%)  | 9.0         | -6.4  | 3.0    | -1.7  | 5.2      | -1.0 | 2.0 |
| 수출증가율 (%) | 25.7        | 15.6  | 7.5    | 11.3  | 5.0      | 3.0  | 4.0 |
| 소비자물가 (%) | 2.5         | 4.6   | 5.3    | 5.0   | 3.5      | 2.6  | 3.0 |
| 실업률 (%)   | 3.7         | 3.3   | 3.0    | 3.1   | 3.5      | 3.1  | 3.3 |

주 : 실적치는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022년 하반기, 2023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2023년에도 국내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외 통화 긴축, 환율 및 물가 불안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한 가운데 성장세 둔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 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산적한 대내외 리스크로 금융과 실물 경제가 동시 침체되는 복합불황 및 이로 인한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무역 등 대외 경상거래의 건전성 유지 노력 역시 강화해야 한다. 넷째, 탐 외교 강화 등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내 투자와 수출 등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제 원자재 수급 안정과 국내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촉진해야 한다.

##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sup>1)</sup>

○ (경기침체 우려 확대) 국내 경제는 0%대 성장세(전기대비 기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동행지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로 재전환되면서 경기둔화 또는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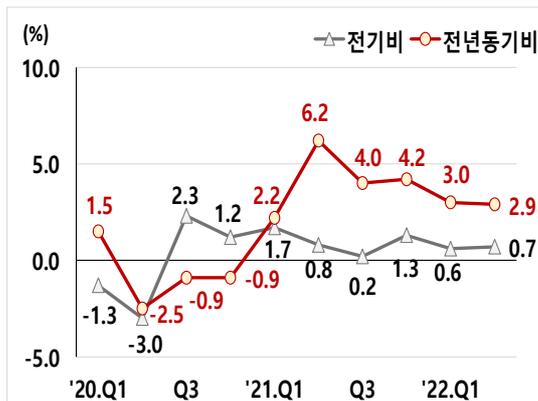
- 2분기 중 외수(순수출) 부문이 성장력을 약화시켰으나, 소비 부문이 높은 증가세를 보여 전기대비 0.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2022년 2분기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순수출(성장 기여도  $\Delta 1.0\%p$ ), 고정투자(0.1%p)의 부진에도, 총소비(1.4%p)가 크게 늘어 0.7%를 기록함
- 또한,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3.0%에서 2.9%로 소폭 하락

- 한편,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 4월을 저점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으나,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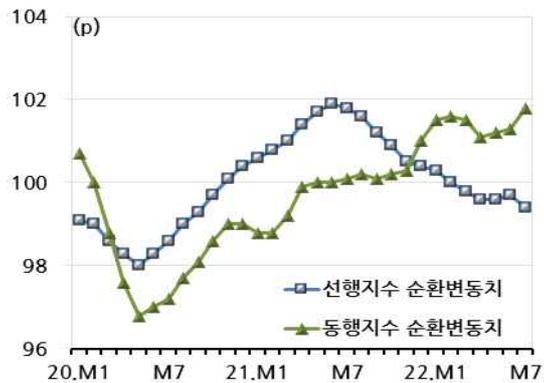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4월 101.1p를 저점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함<sup>2)</sup>
- 또한,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21년 6월(101.9p) 정점을 형성한 이후 하락 추세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sup>3)</sup>

<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자료 : 통계청.

1) 이하 본 보고서는 현대경제연구원, 'Inflation Peak-out and Recession: 물가 정점 통과와 다가오는 경기침체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2년 3분기),' 경제주평, 2022년 9월 2일과 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 경제, 높아지는 하방압력 속 차별화 진행 - 최근 주요국 경기 동향과 시사점,' 경제주평, 2022년 9월 16일에서 다수 발췌·재인용하였음을 밝힘.

2) 동행지수순환변동치: 4월 101.1p, 5월 101.2p, 6월 101.3p, 7월 101.8p.

3) 선행지수순환변동치: 4월 99.6p, 5월 99.6p, 6월 99.7p, 7월 99.4p.

○ (경제 심리 역시 냉각)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가계 심리와 기업 심리도 크게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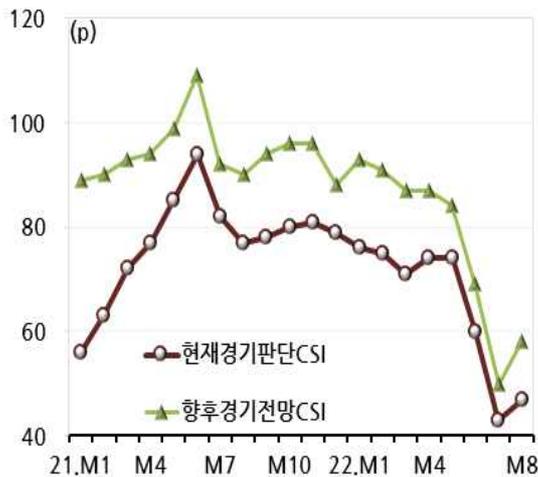
-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는 등 가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

- 부문별로는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가 8월에 47p로 7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 향후경기전망 CSI는 8월 58p로 지난 7월(50p) 급락한 이후 소폭 반등함

- 한은 BSI와 전경련 BSI도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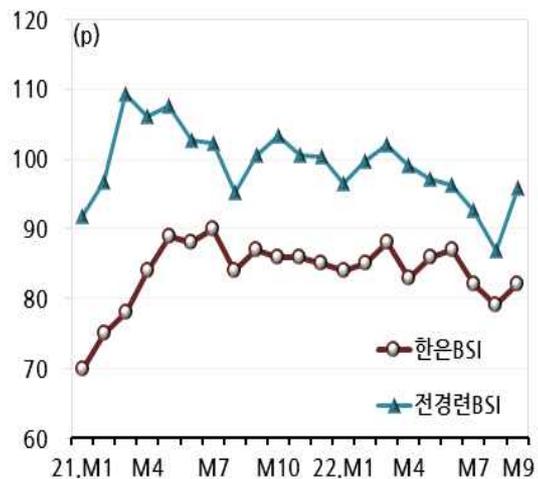
- 전국경제인연합회 BSI(전망)는 지난 3월 102.1p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9월에는 95.8p를 기록하며 소폭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에 미달한 상황<sup>5)</sup>
- 한국은행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도 3월 88p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8월(79p)에는 장기평균 수준을 하회<sup>6)</sup>

<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경기전망 CSI >



자료: 한국은행.

<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자료: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4) 전경련 BSI(600대 기업 대상)는 대기업의 시각을, 한은 BSI(약 3,000여 개 기업 대상)는 중소기업의 시각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한편, 한은 BSI(업황전망)의 명목적 기준치는 100p이나 장기 평균치는 80p임. 따라서 80p는 보통 수준의 경기에 대한 시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판단됨.

5) 전경련 BSI(전망): 3월 102.1p, 4월 99.1p, 5월 97.2p, 6월 96.3p, 7월 92.6p, 8월 86.9p, 9월 95.8p.

6) 한은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 3월 88p, 4월 83p, 5월 86p, 6월 87p, 7월 82p, 8월 79p, 9월 8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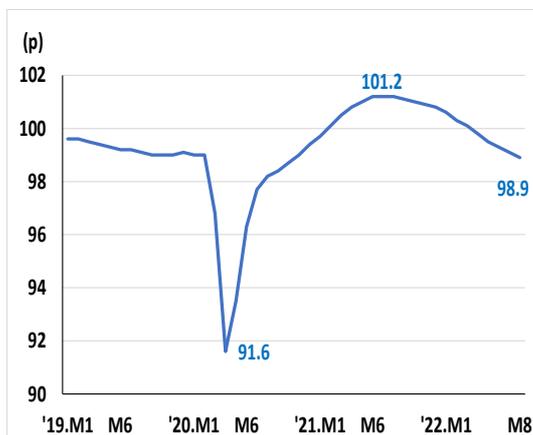
## 2. 대외 경제 여건

### ① 개요 :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고조

○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고조) 세계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고물가 압력,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 등의 영향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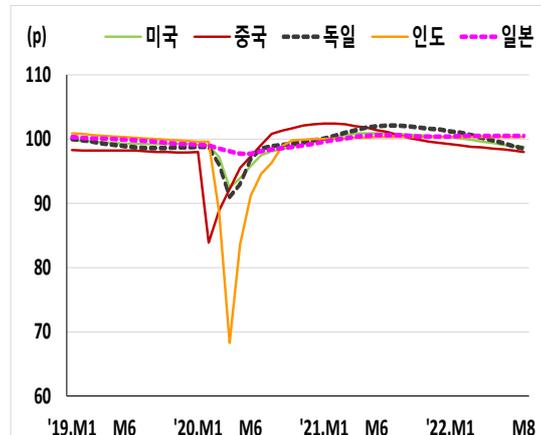
- OECD 경기선행지수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확대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던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9월부터 하락세로 전환
  - 동 지수는 이후 12개월 연속 하락해 2022년 8월 98.9p로 기준치인 100p를 하회하는 수준
- 주요국 경기선행지수도 보합 또는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경기 하방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선진국의 경우 미국과 독일 등의 경기선행지수가 기준선 100p를 하회하면서 하락세가 지속
  - 주요 개도국 중 중국의 경기선행지수가 2022년 3월 100.6p를 정점으로 하락 전환해 지난 8월에는 98.5p까지 하락
  - 한편, 선진국인 일본과 개도국인 인도의 경기선행지수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하방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



자료 : OECD.

<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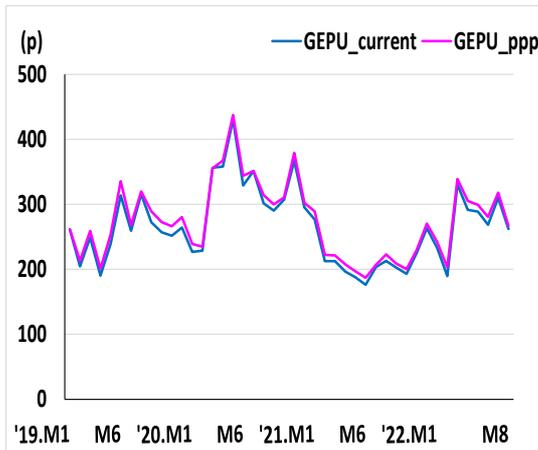


자료 : OECD.

○ (높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동시 진행) 글로벌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물론 공급망 압력 역시 여전히 높은 상황이 지속

-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5월 430.2(이하, 명목 기준)까지 상승했던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는 2021년 6월 176.9까지 하락
  -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로 전환한 후 지난 2022년 8월에는 262.0을 기록
- 글로벌 공급망압력지수(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 역시 최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급등했던 글로벌 공급망압력지수는 2020년 11월 0.70까지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되찾았으나, 코로나19 재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우려로 2021년 12월 4.32까지 급등
  - 이후,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2022년 8월에는 1.84까지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 추이 >



자료 : EPU, [www.policyuncertainty.com](http://www.policyuncertainty.com).  
 주1) 200 이상이면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  
 주2) 'GEPU\_current'와 'GEPU\_ppp'는 각각 경상가격 GDP와 구매력평가 기준 GDP로 측정된 불확실성지수를 의미.

< 글로벌공급망압력지수 추이 >



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주 : 평균값은 제로(0).

## ② 세계 경기 및 교역 : 경기 회복세 약화, 교역 회복 흐름 둔화 전망

○ (현황) 2022년 세계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급격한 물가 오름세, 글로벌 통화긴축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하방압력 고조

- 선진국 경기 : 미국 경제는 고물가와 미 연준(Fed)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성장세 약화, 유로존은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 확대, 일본은 민간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외부문 부진 지속
- 신흥국 경기 : 중국 경제는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성장 둔화 지속, 인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 세계 교역 :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주요국 경기둔화로 회복 흐름이 약화

## &lt;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경제성장률 추이 &gt;

(%)

| 구분       | 2020년 | 2021년 |      |      |     |      | 2022년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 세계 경제성장률 | -3.1  | -     | -    | -    | -   | 6.1  | -     | -    |
| 선진국      | -4.5  | -     | -    | -    | -   | 5.2  | -     | -    |
| 미 국      | -3.4  | 6.3   | 6.7  | 2.3  | 6.9 | 5.7  | -1.6  | -0.6 |
| 유로지역     | -6.3  | -0.1  | 2.0  | 2.2  | 0.5 | 5.4  | 0.7   | 0.8  |
| 일 본      | -4.5  | -0.3  | 0.4  | -0.4 | 1.0 | 1.7  | 0.1   | 0.9  |
| 신흥개도국    | -2.0  | -     | -    | -    | -   | 6.8  | -     | -    |
| 중 국      | 2.2   | 18.3  | 7.9  | 4.9  | 4.0 | 8.1  | 4.8   | 0.4  |
| 인 도      | -6.6  | 2.5   | 20.1 | 8.4  | 5.4 | 8.7  | 4.1   | 13.5 |
| 브 라 질    | -3.9  | 1.3   | 12.3 | 4.0  | 1.7 | 4.6  | 1.7   | 3.2  |
| 러 시 아    | -2.7  | -0.3  | 10.5 | 4.0  | 5.0 | 4.7  | 3.5   | -4.1 |
| ASEAN-5  | -3.4  | -     | -    | -    | -   | 3.4  | -     | -    |
| 세계 교역증가율 | -7.9  | -     | -    | -    | -   | 10.1 | -     | -    |

자료1) 연간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년 7월)

2) 분기 (미국: 상무부; 일본: 내각부; 유로존: Eurostat; 중국: 국가통계국;

인도: 인도중앙통계기구; 브라질: 국립통계원; 러시아: 연방 주 통계청)

주1) 분기성장률 (미국: 전기대비연율; 일본: 전기대비; 유로존: 전기대비; 중국: 전년동기대비

인도: 전년동기대비; 브라질: 전년동기대비; 러시아: 전년동기대비)

2)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포함됨

3) 세계 교역은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량 기준.

○ (전망) 2023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부작용,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 약화 전망

- 선진국 경기 : 미국과 유로존 경기둔화 전망, 일본은 미약한 회복세 예상
  - 미국 경제는 물가 오름세와 통화 긴축정책 여파로 가계의 소비심리 및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경기둔화세 전망
  - 유로존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수급 차질로 산업생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성장세 약화 예상
  - 일본 경제는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및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회복 속도는 다소 둔화
- 신흥국 경기 : 2022년 부진한 흐름 대비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나, 대외여건 악화와 고물가 등 경기 하방 요인 상존
  - 특히, 중국 경제는 당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제로코로나 정책 고수와 부동산 경기침체 우려 등 하방 리스크 존재
- 세계 교역 : 공급망 불안 여파로 인한 에너지 수급 차질과 중국 및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로 세계 교역 회복 흐름은 둔화될 전망

< IMF의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

(%)

| 구분       | 2022년(E)       |                |                | 2023년(P)       |                |                |
|----------|----------------|----------------|----------------|----------------|----------------|----------------|
|          | 2022년<br>1월 전망 | 2022년<br>4월 전망 | 2022년<br>7월 전망 | 2022년<br>1월 전망 | 2022년<br>4월 전망 | 2022년<br>7월 전망 |
| 세계 경제성장률 | 4.4            | 3.6            | 3.2            | 3.8            | 3.6            | 2.9            |
| 선진국      | 3.9            | 3.3            | 2.5            | 2.6            | 2.4            | 1.4            |
| 미국       | 4.0            | 3.7            | 2.3            | 2.6            | 2.3            | 1.0            |
| 유로지역     | 3.9            | 2.8            | 2.6            | 2.5            | 2.3            | 1.2            |
| 일본       | 3.3            | 2.4            | 1.7            | 1.8            | 2.3            | 1.7            |
| 신흥개도국    | 4.8            | 3.8            | 3.6            | 4.7            | 4.4            | 3.9            |
| 중국       | 4.8            | 4.4            | 3.3            | 5.2            | 5.1            | 4.6            |
| 인도       | 9.0            | 8.2            | 7.4            | 7.1            | 6.9            | 6.1            |
| 브라질      | 0.3            | 0.8            | 1.7            | 1.6            | 1.4            | 1.1            |
| 러시아      | 2.8            | -8.5           | -6.0           | 2.1            | -2.3           | -3.5           |
| ASEAN-5  | 5.6            | 5.3            | 5.3            | 6.0            | 5.9            | 5.1            |
| 세계 교역증가율 | 6.0            | 5.0            | 4.1            | 4.9            | 4.4            | 3.2            |

자료 : IMF.

### ③ 국제 유가 :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연중 높은 수준 유지할 전망

#### ○ (현황) 2022년 국제 유가는 대폭 상승

- 2022년 국제 유가는 러시아 원유의 공급감소로 급등하였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완만히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지속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産 원유 공급감소와 상반기 세계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원유 수요가 확대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
  - 하반기로 갈수록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제의 침체 우려로 원유 수요가 감소하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수준을 유지

#### ○ (전망) 2023년 국제 유가는 2022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나,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

- 2023년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는 경우 에너지 수요 위축으로 국제 유가는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
- 다만,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원유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경우 시장 수급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연중 높은 수준의 유가가 지속될 가능성
- 또한, 유가의 하락세가 나타나는 경우 주요 산유국이 감산할 가능성도 있어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 WTI 및 Dubai 유가 추이 및 전망 >

(달러/배럴)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E) |       |       | 2023년(E) |      |      |
|-------|-------|-------|----------|-------|-------|----------|------|------|
|       |       |       | 상반       | 하반(E) | 연간(E) | 상반       | 하반   | 연간   |
| WTI   | 39.3  | 67.9  | 101.4    | 102.4 | 101.9 | 94.8     | 89.0 | 91.9 |
| Dubai | 42.3  | 69.3  | 101.8    | 102.9 | 102.3 | 95.2     | 89.6 | 92.4 |

자료 : 한국석유공사, Bloomberg, 현대경제연구원.

주1) 2022년 상반기까지는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실적치

2) 2022년 하반기부터는 Bloomberg,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④ 주요국 환율 : 달러화 강세 다소 약화. 유로화, 엔화, 위안화 강보합세

○ (현황) 2022년 중 달러화 강세 심화, 기타 통화 약세 지속

- 달러화 : 연준(Fed)의 통화 긴축 가속화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 리스크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로 달러화 강세 기조 심화
  - 달러화 지수(주요국 통화대비)는 2022년 1월 4일 96.3p에서 9월 6일 110.2p까지 상승 후 100p를 상회하는 수준이 지속
- 기타 주요국 통화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로존 경기둔화 가능성,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 및 엔화는 약세
  -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은 2022년 1월 0.88유로에서 9월 1.00유로로 상승
  -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2022년 1월 114.9엔에서 9월 142.6엔으로 상승

○ (전망) 2023년에는 달러화 강세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 유로화, 엔화, 위안화는 강보합세 전망

- 달러화 : 유로존 등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 인플레이 정점 통과에 따른 연준(Fed)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달러화 강세 압력이 완화될 전망
- 유로화 : 유럽중앙은행(ECB)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유로화 강세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나, 유로존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강보합
- 엔화 :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강세 예상. 단, 주요국의 통화 긴축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강세 압력이 제한적일 전망
- 위안화 : 강달러 현상이 완화되면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성장세 둔화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이 가치 상승을 제한할 가능성 상존

< 국제투자은행의 주요국 환율 전망 >

| 구분    | 2020  | 2021  | 2022(E) |         | 2023(E) |       |       |
|-------|-------|-------|---------|---------|---------|-------|-------|
|       |       |       | 1~9월 평균 | 12월말(E) | 3월말     | 6월말   | 9월말   |
| 달러/유로 | 1.14  | 1.18  | 1.07    | 0.98    | 1.00    | 1.02  | 1.05  |
| 엔/달러  | 106.8 | 109.9 | 127.5   | 137.4   | 135.3   | 132.9 | 129.9 |
| 위안/달러 | 6.900 | 6.450 | 6.580   | 6.900   | 6.860   | 6.810 | 6.780 |

자료 : Bloomberg.

주 : 전망 시점은 2022년 중순 기준.

### 3. 2023년 한국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에 비해 둔화될 전망

- (2022년 평가) 글로벌 공급차질과 고물가·고금리 압력으로 내수부문(소비와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대외 부문도 전년 대비 부진한 양상

- 방역조치 완화로 대면 활동이 확산되면서 민간소비는 양호한 회복세가 나타났으나, 고물가·고금리 압력은 민간소비 회복의 하방압력으로 작용
- 글로벌 공급차질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불안정과 원자재 및 수급 가격의 급등으로 건설투자 회복은 지연
- 전년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역(逆)기저효과와 글로벌 공급차질의 여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조달비용 상승으로 설비투자는 감소
- 경상수지의 경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상품수지 흑자 폭은 축소되고, 여행수지 적자 폭은 확대되어 전년 대비 흑자 폭은 축소

- (2023년 전망) 202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성장률로 본 내년도 경기 흐름은 '상저하고' 예상

- 글로벌 경제 흐름은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지속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세계 경제와 교역 회복 흐름은 약화되면서 국내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가정
-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적 전쟁은 2022년 말부터 점차 완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원자재 수급 불안도 2023년부터 완만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전제
- 국내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축소되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방역조치도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가정
- 성장률로 본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다소 확대되는 '상저하고'가 예상됨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3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전망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       | 2023년(E) |     |     |
|----------|-------|-------|-------|-------|----------|-----|-----|
|          |       | 상반    | 하반(E) | 연간(E) | 상반       | 하반  | 연간  |
| 경제성장률(%) | 4.1   | 3.0   | 2.1   | 2.5   | 2.0      | 2.4 | 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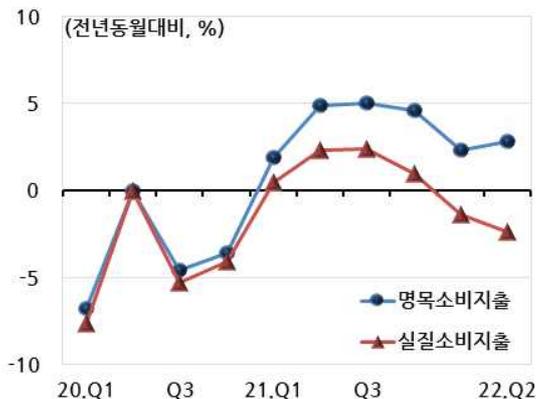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2년 하반기, 2023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 (현황) 민간소비는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대면 활동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 물가에 따른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감소하면서 회복세가 둔화

- 올해 상반기 민간소비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어 대면 활동이 증가 하게 되면서 양호한 회복세가 나타남
- 그러나,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금리도 상승하면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 2022년 1월 이후 생활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8월 생활물가지 수는 1월 대비 8.0p 상승한 110.35p를 기록<sup>7)</sup>
- 상반기 근로자가구(도시, 1인 이상)의 명목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으 나,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한 실질 소비 증가율은 감소세를 기록
- 또한, 여신금리에 영향을 주는 CD금리는 2022년 초에는 1% 중반대였으나, 이후 상승 추세를 나타내며 8월에는 3%에 육박
- 특히, 가계대출(잔액 기준)의 변동금리 비중은 2022년 7월 78.4%를 기록하면 서, 고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계의 소비 회복을 제약

< 가계 명목 및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 추이 >



자료: 통계청.  
주: 도시 근로자가구 1인 이상.

< CD금리 및 생활물가지수 추이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CD금리는 월말 기준.

7) 생활물가지수란 소비자물가지수 품목(458개) 중 가계의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의미.

- (전망)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상승 압력 여파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축소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

- 코로나19 증가세 제한과 방역조치 완화로 인해 민간소비는 대면서비스(숙박, 음식, 해외여행 등)를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
-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실질임금 증가세 둔화는 민간소비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또한, 높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도 축소될 전망
- 이외에도, 국내 경기 불확실성 확대는 가계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2.9%, 하반기 2.6%, 연간 2.7%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3년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       | 2023년(E) |     |     |
|-------------|-------|-------|-------|-------|----------|-----|-----|
|             |       | 상반    | 하반(E) | 연간(E) | 상반       | 하반  | 연간  |
| 민간소비 증가율(%) | 3.7   | 4.1   | 3.2   | 3.7   | 2.9      | 2.6 | 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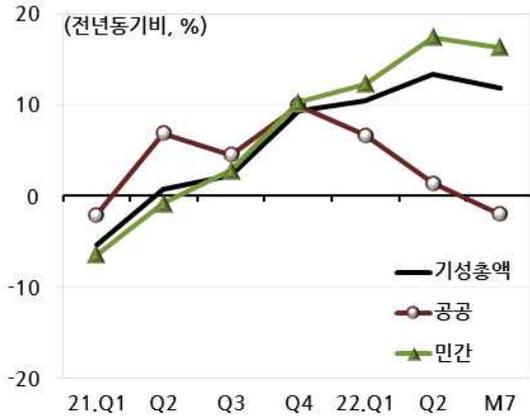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2년 하반기, 2023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건설투자) 증가세 전환

- (현황) 공급망 차질로 인한 건설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상반기 건설투자는 감소하였으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개선되어 하반기부터 회복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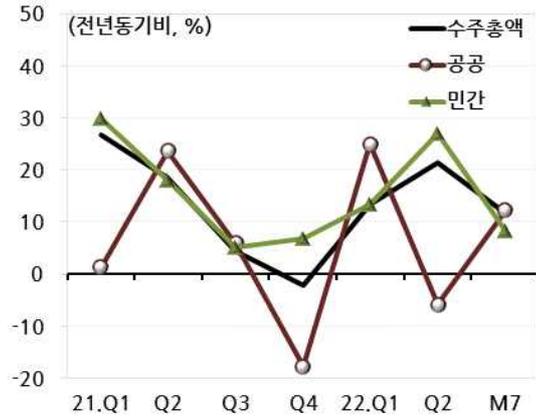
- 상반기 건설투자는 공급망 차질로 인한 건설자재 수급 불안정과 원자재 및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감소 추세를 기록
- 그러나,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민간건설기성 증가세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호조세를 기록
-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높은 증가세 기록
- 주택부문 수주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수주 증가로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비주택 부문 수주도 신규 반도체 공장 증설로 증가세 시현

< 건설기성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건설수주액 증가율 >



자료: 한국은행.

- (전망) 건설자재의 수급여건 개선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내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증가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건설자재의 수급여건은 공급망 차질의 점진적인 개선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
  - 또한, 新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으로 건설수주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sup>8)</sup>
  -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 상승은 건설투자 회복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또한, 정부가 SOC 예산을 전년 대비 10.2% 감축하면서, 공공부문 수주는 토목을 중심으로 감소할 가능성
  - 2023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4.0%, 하반기 1.0%, 연간 2.4%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3년 건설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 구분          | 2021년 | 2022년 |       |       | 2023년(E) |     |     |
|-------------|-------|-------|-------|-------|----------|-----|-----|
|             |       | 상반    | 하반(E) | 연간(E) | 상반       | 하반  | 연간  |
| 건설투자 증가율(%) | -1.6  | -4.5  | 3.0   | -0.8  | 4.0      | 1.0 | 2.4 |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2년 하반기, 2023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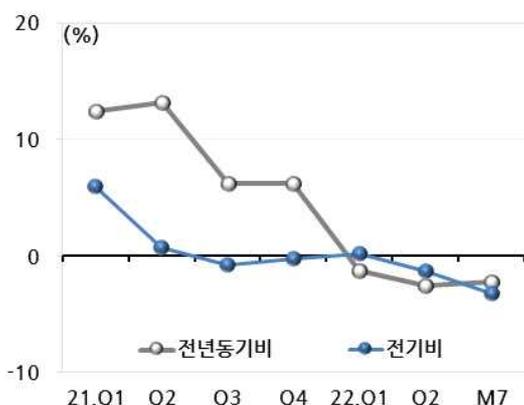
8) 정부는 향후 5년 동안(2023~2027년) 전국에 270만호(인·허가 기준) 주택공급을 계획. 2023년에는 47만호(수도권 26만호) 공급계획.

○ (설비투자) 제한적 증가

- (현황) 전년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역기저효과와 글로벌 공급차질의 여파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조달비용 상승으로 설비투자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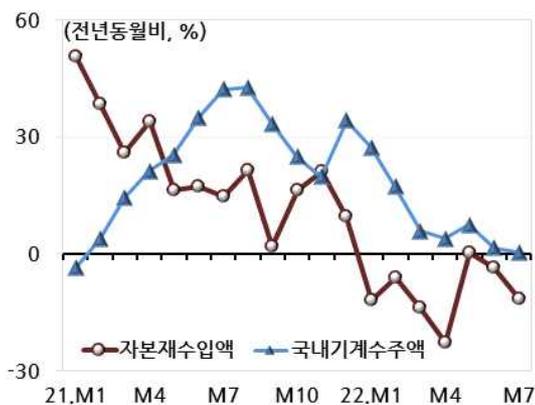
- 2022년도 전년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역(逆)기저효과로 상반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감소<sup>9)</sup>
-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조달비용 상승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sup>10)</sup>
- 올해 상반기 지속된 글로벌 공급차질은 설비투자의 감소세를 가중
- 특히, 운송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전년동기비)은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자본재수입액(전년동월비)은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국내 기계수주액 증가세도 둔화
- 반면, 올해 예정된 반도체 투자의 본격화로 하반기 설비투자는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설비 투자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주: 국내기계수주액은 3개월 이동평균.

9) 2021년도 상반기 설비투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14.5%(전년동기대비) 증가.

10) 2022년 7월 업황전망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한국은행)는 79를 기록하며,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 (전망) 계획된 기업의 반도체 투자가 지속되어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는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반도체 업종의 투자가 2023년에도 이어지면서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기업의 투자 기피 심리 확산은 설비투자 회복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또한,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기업의 높은 자본조달비용은 설비투자 증가세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2023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5.2%, 하반기 -1.0%, 연간 2.0%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3년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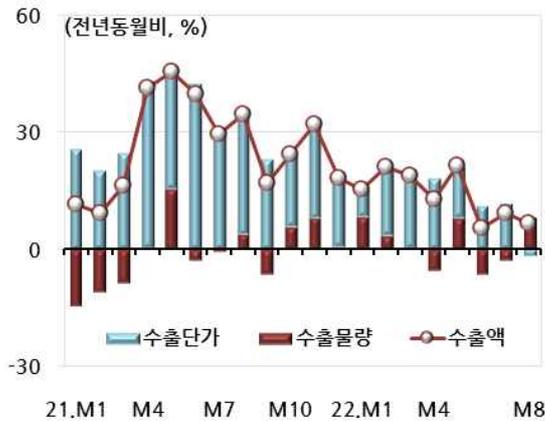
| 구 분         | 2021년 | 2022년 |       |       | 2023년(E) |      |     |
|-------------|-------|-------|-------|-------|----------|------|-----|
|             |       | 상반    | 하반(E) | 연간(E) | 상반       | 하반   | 연간  |
| 설비투자 증가율(%) | 9.0   | -6.4  | 3.0   | -1.7  | 5.2      | -1.0 | 2.0 |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2년 하반기, 2023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수출입) 수출 증가세 둔화. 수입 감소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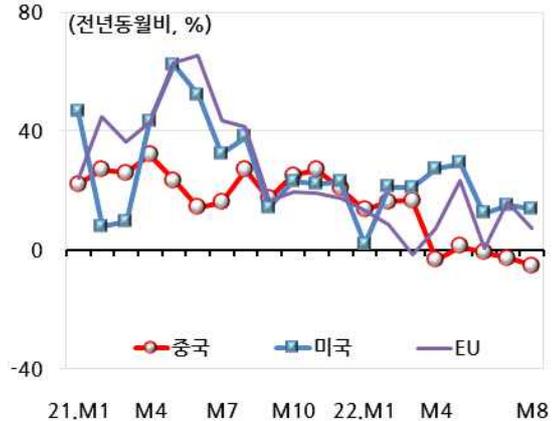
- (현황)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침체되는 등 수출 경기가 확연히 둔화된 가운데 높은 수준의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
  - 8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6.6%로 '20년 11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 아세안, 미국 등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주력 시장인 對중국 수출이 6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부진한 상황
  - 한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21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수입 증가율은 8월 전년동월대비 28.2%를 기록하며 높은 상승세를 지속

< 월별 수출 증가율 >



자료 :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시장별 수출 증가율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전망)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 하방압력이 고조되며 수출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수입은 원자재가격 안정화 등으로 감소세 전환 전망
  - 2023년 국내 수출은 2022년 중 단가 중심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였던 기저효과,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 가능성에 따른 국제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제한적일 전망
  - 2023년 국내 수입은 성장 흐름 둔화에 따라 수입 수요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2년 중 높은 수준을 지속했던 원자재가격이 다소 하향 안정화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경상수지) 흑자 규모 개선

- (현황) 상품수지 악화,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
  - 7월 경상수지는 10.9억 달러로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지난 4월 -0.8억 달러로 적자를 기록한 이후 흑자 규모가 축소
  - 특히, 2022년 중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상품수지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7월 -11.8억 달러로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상황
  -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수지 적자 폭 또한 1월 -5.6억 달러에서 7월 -8.6억 달러 규모로 확대

- (전망) 상품수지 개선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22년 대비 확대 전망

- 2023년 경상수지는 국제 원자재가격 하향 안정화에 따른 수입 단가 하락으로 상품수지 흑자 폭이 확대되면서 2022년 대비 흑자 규모가 개선될 전망
- 다만,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세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경색 현상 심화 등 리스크 요인의 방향에 따라 상품수지 개선 폭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상존
- 또한, 국내 출입국 관련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폭 확대 가능성이 경상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23년 경상수지는 상반기 215억 달러, 하반기 295억 달러, 연간 510억 달러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3년 대외거래 전망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       | 2023년(E) |      |      |
|------------|-------|-------|-------|-------|----------|------|------|
|            |       | 상반    | 하반(E) | 연간(E) | 상반       | 하반   | 연간   |
| 경상수지(억 달러) | 883   | 248   | 165   | 413   | 215      | 295  | 510  |
| 무역수지(억 달러) | 293   | -106  | -287  | -393  | 30       | 75   | 105  |
| 수출증가율(%)   | 25.7  | 15.6  | 7.5   | 11.3  | 5.0      | 3.0  | 4.0  |
| 수입증가율(%)   | 31.5  | 26.3  | 20.1  | 23.0  | 1.1      | -6.4 | -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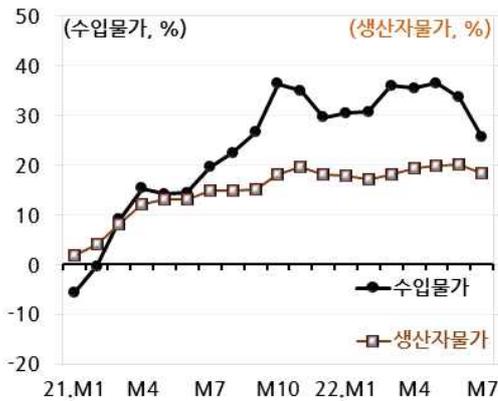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2022년 하반기, 2023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물가) 상승폭 축소

- (현황)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점을 통과(peak-out)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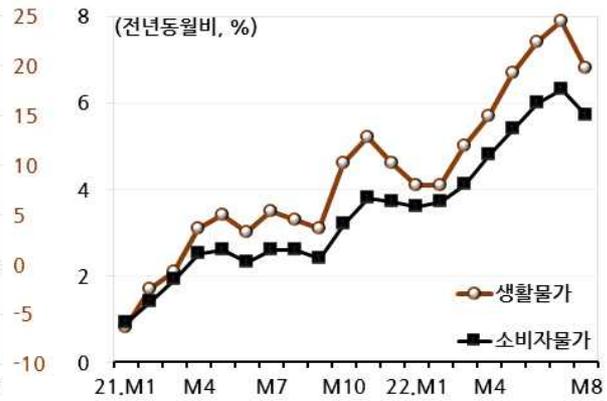
-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면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는 모습
-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보다 하락한 5.7%의 상승률을 기록, 7월에 정점을 통과(peak-out)한 것으로 평가

<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



자료: 한국은행.  
주: 전년동월대비 기준.

<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상승률 >



자료: 통계청.

- (전망) 수요측 및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될 전망
  - 경기둔화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2022년 중 높은 상승세 지속에 따른 역(逆)기저효과로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
  -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 주요 산유국의 감산에 따른 유가 상승, 환율 상승세 지속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3.5%, 하반기 2.6%, 연간 3.0%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3년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전망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       | 2023년(E) |     |     |
|--------------|-------|-------|-------|-------|----------|-----|-----|
|              |       | 상반    | 하반(E) | 연간(E) | 상반       | 하반  | 연간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5   | 4.6   | 5.3   | 5.0   | 3.5      | 2.6 | 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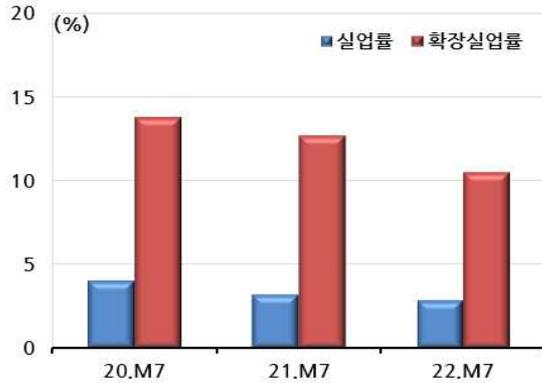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22년 하반기, 2023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고용) 실업률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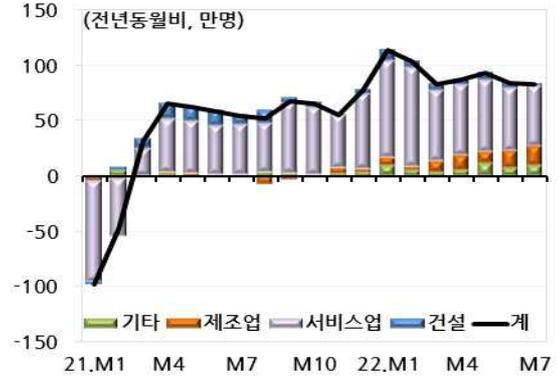
- (현황) 고용시장은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시장 수요 확대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며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을 지속

-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고용시장은 개선 흐름을 유지
- 신규 취업자수 증가는 서비스업이 견인,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지속

< 2020~2022년 7월 기준 실업률 및 확장실업률 > < 주요 산업별<sup>11)</sup> 취업자 증감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전망) 국내 경기의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실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내수 부진, 수출 증가세 둔화 등 경기의 하방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시장은 위축될 전망
- 2022년 고용 호조로 인한 역(逆)기저효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취업자수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한편, 서비스업 생산 회복세 약화, 공공형 일자리 축소 등으로 고용시장의 둔화세가 심화할 가능성도 상존
- 2023년 실업률은 상반기 3.5%, 하반기 3.1%, 연간 3.3%, 신규 취업자수는 상반기 26만 명, 하반기 28만 명, 연간 27만 명으로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의 2023년 고용 지표 전망>

| 구 분         | 2021년 | 2022년 |       |       | 2023년(E) |     |     |
|-------------|-------|-------|-------|-------|----------|-----|-----|
|             |       | 상반    | 하반(E) | 연간(E) | 상반       | 하반  | 연간  |
| 실업률(%)      | 3.7   | 3.3   | 3.0   | 3.1   | 3.5      | 3.1 | 3.3 |
| 취업자수 증감(만명) | 37    | 94    | 62    | 78    | 26       | 28  | 27  |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22년 하반기, 2023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11) 기타는 광업, 유틸리티,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합계임.

## &lt; 현대경제연구원의 2023년 한국 경제 전망표 (2022.9) &gt;

| 구 분              |             | 2021년 | 2022년 |       |       | 2023년(E) |      |      |
|------------------|-------------|-------|-------|-------|-------|----------|------|------|
|                  |             |       | 상반    | 하반(E) | 연간(E) | 상반       | 하반   | 연간   |
| 국<br>민<br>계<br>정 | 경제성장률 (%)   | 4.1   | 3.0   | 2.1   | 2.5   | 2.0      | 2.4  | 2.2  |
|                  | 민간소비 (%)    | 3.7   | 4.1   | 3.2   | 3.7   | 2.9      | 2.6  | 2.7  |
|                  | 건설투자 (%)    | -1.6  | -4.5  | 3.0   | -0.8  | 4.0      | 1.0  | 2.4  |
|                  | 설비투자 (%)    | 9.0   | -6.4  | 3.0   | -1.7  | 5.2      | -1.0 | 2.0  |
| 대<br>외<br>거<br>래 | 경상수지 (억 달러) | 883   | 248   | 165   | 413   | 215      | 295  | 510  |
|                  | 무역수지 (억 달러) | 293   | -106  | -287  | -393  | 30       | 75   | 105  |
|                  | 수출증가율 (%)   | 25.7  | 15.6  | 7.5   | 11.3  | 5.0      | 3.0  | 4.0  |
|                  | 수입증가율 (%)   | 31.5  | 26.3  | 20.1  | 23.0  | 1.1      | -6.4 | -2.8 |
| 소비자물가상승률 (%)     |             | 2.5   | 4.6   | 5.3   | 5.0   | 3.5      | 2.6  | 3.0  |
| 실업률 (%)          |             | 3.7   | 3.3   | 3.0   | 3.1   | 3.5      | 3.1  | 3.3  |
| 취업자수 증감(만 명)     |             | 37    | 94    | 62    | 78    | 26       | 28   | 27   |

#### 4. 시사점

첫째, 국내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국내 경제는 이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3고(高) 현상과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글로벌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같은 다수의 경기 하방 리스크에 직면해 있음
- 반면에 코로나19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기 둔화, 인플레이 등 동시다발적인 위기로 가계 및 기업 등 민간 경제 주체들의 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으로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 발휘가 시급한 상황
- 따라서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물가 안정'에서 '경기 안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정정책의 방향 역시 점진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지금까지 추진되어왔던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 정책, 소비와 투자 진작 대책 등 전반적인 위기 대응 정책을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함
- 통화정책 역시 물가 안정은 물론 경기 급락 가능성과 민생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절한 조정이 필요함

둘째, 산적한 대내외 리스크로 금융과 실물 경제가 동시 침체되는 복합불황 및 이로 인한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 한·미 기준금리 역전, 외화 유출 등에 따르는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통화 및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소통이 필요함

- 한·미 통화스왑, 아시아 역내 통화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내 통화 및 외환 시장의 안전핀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함
-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시장 전반의 안정화를 위해 실천 가능한 조치들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자본시장 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셋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무역 등 대외 경상거래의 건전성 유지 노력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르는 국내 수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외 수출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공공 및 민간 부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
- 신성장 산업 및 차세대 수출 유망 산업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기술 경쟁력 제고, 시장 특성별 수출 전략 차별화 등을 통해 對중국 무역수지 악화 예방은 물론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해야 함
- 특히, 최근의 수출 경기 하강 추세는 단순한 글로벌 경제의 침체 때문이 아니라 특정 수출 대상 지역의 방역 상황 악화, 미·중 간 경제 갈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수요 위축 등의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
- 효율적인 코로나19 방역 체계 확립 등을 통해 국내 여행 및 관광 생태계를 복원하여 대외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는 한편 불법적인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대외 경상거래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넷째, 탐 외교 강화 등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내 투자와 수출 등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제 원자재 수급 안정과 국내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촉진해야 함

- 반도체, 배터리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 주력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 재구축이 시급할 뿐 아니라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 관행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국제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원전, SOC 등 각국 경기부양책 추진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수출선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공급망 역시 강화해야 함 **HRI**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신 지 영 선 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 임 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